

# 내달 14일부터 신선농산물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 따라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전북농관원, 6일부터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사전 현장 홍보 추진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표준규격품이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해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은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버섯류, 겹집째 먹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이다. 겹집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사과, 포도, 단감, 자두, 블루베리,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

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며, 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겹집을 벗겨 먹는 품목과 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 씻어서 먹는 품목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문구 표시는 버섯류의 경우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겹집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

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공동선별조직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한 현장 홍보를 이달 6일부터 추진한다.

또한 10월 14일 이후에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이 지역농산물 출하 확대 및 연초 저온피해로 인한 사과농가 지원을 위해 오는 7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 및 전국 홀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예담채 봉지사과 1.5kg 10만봉에 대해 판촉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무주 고랭지 사과, 영양 풍부·효능 우수'

전북농협, 예담채 무주 헛사과 판촉행사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역농산물 출하 확대 및 연초 저온피해로 인한 사과농가 지원을 위해 오는 7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 및 전국 홀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예담채 봉지사과 1.5kg 10만봉에 대해 판촉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무주 사과는 고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되는 고랭지의 특수한 기후조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효능도 우수

하다. 사과는 칼륨, 칼슘, 나트륨 등 무기질 함량이 높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식이섬유소 및 비타민C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사과의 섬유질은 체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낮춰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북농협은 계절 맞은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오프라인 뿐이 아닌 거시기 장터, 라이브 커머스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창업 준비생 대상

## 온라인 무료 교육

경진원, 오늘부터 실시

전북도경제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온라인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9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14시마다 진행되며, 경진원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개설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경진원에 위탁한 '소셜캠퍼스온 전북'이 주관·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강생들의 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준비했다.

교육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초 및 스타트업 피칭 전략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지정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이현웅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도내 사회적 경제의 저변이 확대되고 외연이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수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와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관련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NH농협생명 전북, 농축협 경영자 워크숍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1일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전북 지역농·축협 전·상무 및 신용사업 책임자를 대상으로 2021년 NH농협생명 농축협 경영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농·축협 비이자 수익증대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웰스에듀 김양수 대표가 '코로나가 바꾼 세상 2021년 하반기 경제 금융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더불어 보험업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하는 DIY(Do It Yourself)보험이 큰 강세라고 강조했다.

농협생명의 대표 DIY보험인 '두개만 묻는변경강보'는 재해사망 보장



하는 주계약과 더불어 암·뇌·심장관련 질환 중 고개미 원하는 보장을 선택해 진단 및 수술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가지 고지사항(3개월 이내 의사 소견 /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진단, 수술, 입원력)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인수가 가능해 가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숙 총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하반기 사업추진 원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험사업 활성화로 비이자수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남극 기지 실내농장서 '무리무리'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이 농촌 진흥청이 보낸 실내농장에서 채소를 성공적으로 수확해 애호박, 완두콩, 오이, 수박, 화채 등을 해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실내농장 내부

생육 상황을 영상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어 남극 대원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컨설팅하고 있다.

현재 남극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9개 나라의 83개 기지가 운영 중이며, 일부 기지들은 신선 채소 공급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체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실내농장을 구축해 연구기지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남극세종과학기지가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 애호박, 오이, 수박 등 열매채소를 재배해 먹은 것은 우리나라가 남극에 진출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보낸 실내농장이 본격 가동돼 현지 대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농진청, 세종과학기지에 보낸 실내농장 가동 현지 대원들에 애호박·오이 등 신선 채소 공급 실내농장 구축 연구기지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

지난해 10월 말 해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실어 보냈던 실내농장은 올해 1월 중순 현지에 도착했으며, 2~4월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치고 5월 7일 첫 파종을 시작했다.

이후 농작물이 잘 자라 상추 등 일체소는 6월부터 매주 1~2kg 수확을 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재배를 시도해 열매 채소가 많았던 열매채소도 오이, 애호박, 고추는 7월 중순부터, 토마토와 수박은 8월 중순에 성공적으로 수확하고 있다. 현재 17명의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은 실내농장에서 기른 신선 채소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고 있으며, 특히 쌈은 물론 찜, 국, 무침, 주스 등에 넣어 다양하게 해 먹고 있다.

10년 전 보낸 실내농장이 상추 등 일체소만 재배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보낸 실내농장은 일체소와 오이, 애호박, 고추, 토마토, 수박 같은 열매채소까지 동시에 재배할 수 있도록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이 실내농장은 발광다이오드(LED)를 인공광으로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빛의 주기와 세기를 농작물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농진청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실내농장 내부의 재배 환경과

다시, 아무쪼록 건강과 영양을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실내농장 관련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극지는 물론 사막 등에 실내농장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호 극지연구소장은 "대원들이 신선한 채소를 자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기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이 실내농장에서 푸르른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도내 중기 대상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

전북은행, 명절 맞아 10월 1일까지 총 5000억원 규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추석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에 따른 부족자금 결체, 직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환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이 다. 대출 금리는 거래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

소화한다.

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양질의 금융자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호남지방통계청은 1일 '제27회 통계의 날'을 맞아 나리키움 광주통계청사에서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응답 유공자들을 초청해 기념식과 포상 수여식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개최했다.

## "호남권 데이터 허브로 거듭날 것"

호남통계청, '통계의 날' 기념식

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은 1일 '제27회 통계의 날'을 맞아 나리키움 광주통계청사에서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응답 유공자들을 초청해 기념식과 포상 수여식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개최했다.

'통계의 날'은 우리나라 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호국조사규칙'이 시행된 1869년 9월 1일을 기념해 1965년 9월 1일 제정, 2009년부터 통계법에 근거를 둔 법정기념일로 격상됐다.

이번 통계의 날 기념식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통계업무 종사자와 통계응답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김윤상 기자

기념식에서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대한조선(주)에 대통령 표창, 디와이노베이트(주)에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통계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포상 수여식 후 기관이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신 미션·비전 선포식'도 실시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신 미션·비전'은 새로운 경영이념과 대내·외 환경 변화, 정부혁신 의지를 반영해 직원·전문가·지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정했다.

김대호 청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통계서비스 제공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통계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호남권 데이터 허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협 체크카드 신청 가능'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오는 6일부터 신협 체크카드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13일부터는 조합 창구를 통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적용) 해당되는 개인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2만 원이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년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도 개인적으로 진행된다.

신협체크카드 국민지원금 신청홈페이지(<http://www.ao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조합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조합창구는 반드시 본인인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대리신청 불가).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카드발급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창구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협 온(ON)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카드발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협 체크카드 국민지원금 사용 시 실시간으로 차감금 및 잔액이 문자 발송된다. 아울러, 사용 및 잔액 실적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